

청와대 회동 참고자료

1. 모두말씀 (공개)

○ 안녕하세요?

올 겨울은 몇 십년만의 강추위라고 해서 걱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고통이 크고,
전력수급도 걱정인데,
대통령께서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어제 인수위원장을 발표했고,

인수위 구성을 조만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저는 인수위를 가급적 차분하고, 조용하게 운용하면서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둘 생각입니다.

정부의 정책 집행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유념해서 인수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현안 말씀 (민생예산)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진통을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신다.

이번 민생예산은 최소한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크게 고통을 받는 분들이 서민과 중산층인데,
이 분들이 지금 너무 어렵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지기 전에
미리 어려운 점을 챙기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채를 일부 발행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는데,
지금 안하면 나중에 더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재정을 투입해서 민생을 살리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재정을 아끼는 것이다.

시급한 민생예산의 반영을 위해서는
최대 1조 4천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국채발행이 필요하다.
그동안 세출삭감에 노력해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세출삭감을 더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예산안의 연내처리까지 고려하면,
민생예산의 반영을 위해 최소한의 추가 국채발행은 불가피하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해 국채발행에 소극적인 정부 입장도 이해하지만,
지금은 민생경제 자체가 위기상황이고,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정부도 국채발행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언론 인터뷰 (예산관련)

지금 야당에서 6조 예산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동안 세출삭감을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예산은 1조원 안팎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채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생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이다.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고,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올해는 강추위까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삶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지기 전에
미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안하면 국민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재정은 나중에 더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재정을 투입해서 민생을 살리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재정을 아끼는 것이 될 수 있다.

야당도 민생예산에 대해 찬성했던 거 아닌가?
영유아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등과 같이
당장 서민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다.
이번에 해결 안되면, 실천할 수가 없다.

소나기가 내릴 때, 정부가 우산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 역할을 할 것인가?
시급한 민생현안을 챙기는 일에 있어서는
여야 구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시급한 민생 예산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도 국정 동반자로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